

\*동사1

1. 이것이 핵심이다!-동사는 다른 품사들과 조금 다르게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정리해야 할 것들도 많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공략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부분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후 수, 시제, 태에 대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동사2편에서 동사의 구조(문장의 형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동사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동사의 수-위에서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동사와 주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동사로,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동사를 써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문제로 내면 아무도 안 틀리겠죠? 평가원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쉬운 문제-My name is / are Tom.

→주어가 단수니까 답은 당연히 단수동사인 is!

어려운 문제-So what we really want, it seems, ① is to stop wanting.

→what 등이 이끄는 절은 단수, 거기다 it seems라는 삽입 어구로 현혹시키지만 결국 답은 주어에 맞추어 단수동사인 is.

위의 어려운 문제는 2012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평가원 수일치 문제는 각종 복잡한 삽입 어구로 여러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이면 복수동사라는 기본만 기억하고 기출 문제로 몇 번 연습해 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전적인 연습은 본교재에서 해 보기로 하죠.

3. 동사의 시제-동사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나눌 수 있구요, 이를 다시 세분하여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but, 수능에서는 시제를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에서 시제는 오답 선지로 활용된 적은 많지만 정답 선지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답 선지로 활용될 때는 주로 가정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교재에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죠.

기본적인 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동사 play의 과거형은 played, 현재형은 play 뭐 이런식으로요. 이런 개념들은 너무 쉬워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동사를 보고 이 동사가 과거형이구나, 현재형이구나, 미래형이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글이 조잡해진 것 같아 시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 문제상으로는 시제와 관련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제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들도 술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뭐 이정도로 정리되겠네요.

4. 동사의 태-동사의 수와 함께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동사의 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사는 그 자체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 집니다. 태는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되는데, 여러분이 술하게 들어온 수동태라는 말은 타동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문법상으로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을 때 쓰이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었으니 수동태고 뭐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시-자동사: He arrived on exact time. (→‘도착하다’라는 뜻의 자동사가 쓰임. 목적어 x)  
타동사: I'm using a new device.(→‘~을 사용하다’라는 뜻의 타동사가 쓰임. 목적어 o)  
타동사를 수동태로 전환: A new device is being used by me.

이처럼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구요, 목적어가 없을 때는 문법상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석상으로는 능동이 아닌 ‘수동’이니깐 어떤 일을 당하는 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쉽습니다. 해당 동사가 ‘~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즉 위의 예에서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에 도착하다이지 ~을 도착하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용하다’라는 동사는 그 목적 대상인 ‘~을’ 사용하다라고 해야 완전해 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우선 ‘~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면 타동사,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그 예외적인 동사들을 따로 외워두시면 됩니다.(사실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예외적인 동사들도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5. 정리-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수, 시제, 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수나 태는 언제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 챙겨 두시구요, 시제는 수나 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 집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박스형 어법에서는 주로 수나 태를 묻습니다. 가끔 밑줄형 어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4인 4색 본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동사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문장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